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긍지높이 선언하시고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2 면에서 계속

교육사업에서 대혁명을 일으키는것은 우리 나라에 인제가 바다를 이루게 할데 대한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므로 하시면서 교원진영을 강화하고 교원들의 자질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자면 과학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이며 과학교육을 중시하는 전사회적인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모든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이 과학교육사업에서 결된 문제들을 하나씩 맡아 책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일군들과 당원들에게 수범을 보이며 전사회적으로 과학중시, 교육중시기풍을 확립하는데 앞장서자라는 것을 호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는 부강번영할 사회주의조국과 사명하는 후대들을 위하여 중대한 책임을 걸머진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투쟁하는가에 따라 조국의 강대함과 후손들의 행복이 결정된다고 하시면서 높은 당적책임감과 애국심을 지니고 과학교육사업의 혁명적전환을 위하여 분투해나가자고 강조하시였다.

둘째 의정에 대한 토론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박태성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인 김수길동지,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승수동지가 하였다.

토론자들은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과학교육사업 문제부터 토의하는것은 우리 당이 과학교육을 얼마나 중시하고 내세우고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고 한결같이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현명한 명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 주체의 과학과 교육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떨치는 성과들이 수없이 이룩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과학교육사업을 최대로 중시하시고 혁명발전의 최우선과제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우리 나라를 과학기술강국,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는데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어 둘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가 채택되였다.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결정들이 반영되어있다.

첫째,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의 대토로를 열어 나갈것이다.

둘째,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것이다.

셋째, 과학기술과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며 전사회적으로 과학중시, 교육중시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할것이다.

다섯째, 각급 당조직들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을 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총화하면서 철저히 집행할것이다.

여섯째, 내각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를 관철하기 위한 행정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전원회의는 셋째 의정인 조직문제를 보았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을 보선하였다.

김성각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보선하였다.

신영철동지, 손철주동지, 장길성동지, 김성남동지를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김준선동지, 김창선동지, 정영국동지, 리두성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리선전동지, 홍정득동지, 석상원동지, 장길봉동지, 박훈동지, 고기철동지, 안명건동지, 고명철동지, 김선욱동지, 홍만호동지, 김철하동지, 김용구동지, 김철봉동지, 김일국동지를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보선하였다.

당중앙집사위원회 위원을 소환, 보선하였다.

고철만동지, 최성근동지를 당중앙집사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에서 역사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병진로선의 승리를 선언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모션을 제시한것은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역사

적의의를 가지는 정치적사건으로 된다고 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은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에 토대하여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를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앞당겨 점령하는것이라고 천명하시였다.

당의 새로운 혁명적로선에 관통되어있는 근본핵, 기본원칙은 자력갱생이라고 강조하시고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오직 자력갱생, 전인불발함으로써 번영의 활로를 열고 훌륭한 미래를 앞당겨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달성하여야 할 투쟁목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상승계도에 확고히 올려세우며 나아가서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사회주의경제, 지식경제를 세우는것이라고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당이 제시한 새로운 혁명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과학, 교육사업을 중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당과 혁명을 옹위하고 우리의 위업을 전진시키는데서 과학기술전선이 제일척후전선이라면 과학자, 기술자들은 그 주력군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심장에 새기고 사회주의건설의 개척자, 선도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탐구전, 창조전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당의 혁명적로선과 방침을 현실로 전면시키자면 일군

들이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분발하여야 하며 높은 실력을 지니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를 당이 바라는 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해 뛰고 또 뛰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정치사상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온 나라가 당이 제시한 새로운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세차게 끓어받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는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통성번영하는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하고 우리 인민의 자주적리상과 행복을 꽃피워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역사적인 계기로 될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새로 선거된 정치국 위원



김정각동지